

조선족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

김 옥 수* · 백 성 희** · 김 계 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후 크게 줄었던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02년 3월 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는 약 27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국적은 다양하여 92개국에 이르며 이들 중 조선족이 약 15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Justice, 2002).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 중 29%는 현재수준보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향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현재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Korea Labor Institute, 2002).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의 어려움, 가족과의 이별, 향수,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낯선 환경에의 적응이 쉽지 않으며(Kim, Sodonompil & Kangmai, 2001),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2001).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Israel, Farquhar, Schulz, James, & Parker,

2002).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단절이나 부정적인 정서상태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낯선 땅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인간의 친밀감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이를 충족시키고 싶어하는데, 타인과의 접촉에서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Shearer & Davidhizar, 1994; Tjihuis, de Jong-Gierveld, Feskens & Kromhout, 1999). 외로울 때 사람은 대체로 불유쾌함을 경험하며, 걱정하고, 내향적이 되며,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부정적이 된다.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Dykstra(1990)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자 중 가족 구성원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 외로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지자들의 구성에 가족을 포함하여 친구나 동료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 조사할 때 사회적 지지자의 구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부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박사과정

투고일 2003년 6월 13일 심사회의일 2003년 6월 16일 심사완료일 2003년 8월 1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외국인 근로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이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선족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선족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의 정도를 알아본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의 정도를 알아본다.
-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 1) 조선족 근로자 :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중, 국적이 중국인 교포를 말한다.
- 2) 사회적 지지: 개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나 감정이입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한 만족(Sarason & Sarason, 1985)으로 본 연구에서는 Sarason, Sarason, Shearin과 Pierce (1987)의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6(SSQ6)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3)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고 개인이 가진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Lazarus & Folkman, 1984)으로 본 연구에서는 Cline, Herman, Shaw와 Morton (1992)이 개발한 시각적 유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 4) 외로움: 개인이 사회적 관계의 지지망이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기대보다 부족할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감정(Peplau & Perlman, 1982)으로 본 연구에서는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RULS) (Russell, Peplau & Cutrona, 1980)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종교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근로자 64명으로 하였으며 한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 구성 및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arason 등(1987)이 개발한 6개 문항의 SSQ6를 Hong(1996)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SSQ6는 주어진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각 문항마다 9명까지 열거할 수 있으며 지지자로부터 받은 지지의 질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6점)에서 '매우 불만족한다'(1점)로 6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망의 구성은 지지망 중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을 %로 구하였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가족 내 지지자들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arason 등(1987)은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에 대한 Cronbach's α 값을 .90, 지지에 대한 만족도의 Cronbach's α 값을 .92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3과 .93이었다.
- 2)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line 등

(1992)이 개발한 시각적 상사척도(VAS)를 사용하였다. VAS는 현재 한국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10cm의 수평선을 이용하여 왼쪽 끝 0cm에는 “전혀 없다”로 0점, 오른쪽 끝 10cm에는 “매우 높다” 10점이 제시되었다. 대상자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외로움 :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정판 RULS(Russell et al., 1980)를 Kim(1998)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0문항으로 각 진술에 대하여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자주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다. 가능한 점수는 20-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0개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이며 10개 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며 긍정적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합산하였다. Perry(1990)의 기준에 따라 20-34는 낮은 정도의 군, 35-49는 보통 정도의 군, 50-64는 보통 정도 이상의 군, 65-80은 높은 정도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민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3년 1월에서 4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울시에 있는 3개 교회에서 실시되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교회를 방문한 조선족 근로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나눠주었으며 대상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에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수집된 총 79부의 설문지 중 내용이 불완전하게 작성된 15부를 제외한 총 64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0.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수,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4)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32세에서 67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5.1세였다. 대상자 중 40대가 3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가 33.3%, 50대 이상이 31.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39.7%, 여자가 60.3%를 차지하였다. 결혼을 한 대상자는 98.4%로 대부분이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상자는 36.0%이며 불법 체류자는 64.0%이었다. 한국에 체류한 시간은 평균 35.22개월로 2개월부터 156개월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완전고용이 39.3%이었고, 시간제 고용은 6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에 평균 5.24일, 하루에 11.2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로는 기독교가 76.2%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가 20.6%, 불교는 3.2%로 가장 적었다. 현재 혼자 살고 있는 대상자가 40.6%이었고, 동료,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대상자는 59.4%이었다. 한 달 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상이 59.7%로 가장 많았고 51-99만원이 30.6%, 50만원 이하는 9.7%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한 대상자가 62.5%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대상자는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사회적지지, 외로움, 스트레스의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하위개념인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는 평균 1.52였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4.83, 지지망의 구성 중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67.37%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64)

Characteristics	n	%	M±SD	Range
Age(years)			45.10± 8.52	32- 67
Thirties	21	33.3		
Forties	22	34.9		
Fifties or over	20	31.7		
Gender				
Male	25	39.7		
Female	38	60.3		
Marital status				
Married	63	98.4		
Unmarried	1	1.6		
Residency status				
Legal	18	36.0		
Illegal	32	64.0		
Residency duration/month			35.22±29.75	2-156
Employment type				
Full-time	24	39.3		
Part-time	37	60.7		
Working hours				
Day/1 week			5.24± 1.66	1- 7
Hours/1 day			11.27± 2.41	5- 14
Religion				
Protestant	48	76.2		
Buddhism	2	3.2		
Others	13	20.6		
Living arrangement				
Alone	26	40.6		
Not alone	38	59.4		
Income(Thousand won/month)				
≤50	6	9.7		
51-99	19	30.6		
≥100	37	59.7		
Education				
Middle school	40	62.5		
High school	24	37.5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는 10점 만점에서 평균 5.66 이었으며 범위는 0에서 10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외로움 평균은 44.90이었으며 외로움의 정도를 범주화하여 구분하였을 때 보통 정도의 집단이

<Table 2> The level of social support, stress, and loneliness

(N=64)

Characteristics	M±SD n(%)	Observed range	Possible range
Social support			
Support network	1.52± .72	1.00-3.83	0-9.00
Support satisfaction	4.83± .98	1.00-6.00	1.00-6.00
Support composition	67.37±39.93	0-100	0-100
Stress	5.66± 2.76	0-10	0-10
Loneliness	44.90±12.84	23-79	20-80
Low	13(21.0)		
Moderate	30(48.4)		
Moderately high	13(21.0)		
High	6(9.7)		

48.4%로 가장 많았고 낮은 정도의 집단과 보통 정도 이상인 집단이 각각 21.0%이었으며 높은 정도의 집단은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의 점수 분포는 23점에서 79점까지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는 학력(t=-2.655, p=.013)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의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대상자의 지지량은 평균 1.28명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는 1.84명의 지지량

을 가지고 있어 학력이 높은 대상자가 사회적 지지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지자에 대한 만족에서는 동거상태(t=-2.362, p=.025)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이 있는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만족 5.11은 혼자 사는 대상자의 지지 만족도 4.45보다 더 높았으며 지지자 중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Table 3>.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연령군(F=12.095,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test로 사후검증을 한 결과 40대는 3.71로써 30대의 6.30과 50대의 7.20에 비하여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

<Table 3> Social suppor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64)

	Support network			Support satisfaction			Support composition		
	M±SD	t, F or r	p	M±SD	t, F or r	p	M±SD	t, F or r	p
Age(years)									
Thirties	1.75± .83	1.603	.213	4.93± .63	2.138	.129	66.62±39.20	.478	.622
Forties	1.46± .68			5.03±1.00			72.67±39.63		
Fifties or over	1.27± .52			4.35±1.30			60.31±42.46		
Gender									
Male	1.56± .86	.235	.815	5.13± .80	1.758	.085	58.16±44.54	-1.314	.196
Female	1.51± .64			4.64±1.06			72.46±36.35		
Residency status									
Legal	1.55± .74	.272	.787	4.86± .89	-.314	.755	64.36±42.94	-.301	.765
Illegal	1.48± .77			4.95± .89			68.10±40.27		
Residency duration /month		.015	.923		.081	.564		-.042	.748
Employment type									
Full-time	1.55± .68	.151	.881	4.83± .81	.126	.900	68.23±36.82	-.004	.997
Part-time	1.51± .77			4.80±1.09			68.27±41.91		
Working hours									
Day/1 week		-.003	.985		.148	.374		.192	.212
Hours/1 day				-.189			.316		
Religion									
Protestant	1.44± .65	2.046	.142	4.81±1.06	.036	.964	64.91±42.05	.403	.670
Buddhism	2.42±2.00			5.00± .00			82.61±24.60		
Others	1.69± .59			4.85± .68			73.94±34.15		
Living arrangement									
Alone	1.73± .92	1.436	.164	4.45±1.21	-2.362	.025*	42.65±42.98	-4.263	.000**
Not alone	1.39± .53			5.11± .66			84.07±27.55		
Income(Thousand won/month)									
≤50	1.33± .67	.148	.863	4.50± .37	.768	.470	47.35±45.71	1.611	.209
51-99	1.55± .71			4.66±1.21			61.83±44.07		
≥100	1.54± .77			4.94± .95			74.81±34.87		
Education									
Middle school	1.28± .50	-2.655	.013*	4.74±1.07	-.788	.434	69.61±42.06	.572	.569
High school	1.84± .85			4.95± .83			63.57±36.63		

*p< .05, **p< .01

<Table 4> Stress and lonel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64)

	Stress			Loneliness		
	M±SD	t, F or r	p	M±SD	t, F or r	p
Age(years)						
Thirties	6.30±2.72	12.095	.000**	43.80±10.93	3.522	.036*
Forties	3.71±2.00			41.09±11.53		
Fifties or over	7.20±2.33			51.11±14.47		
Gender						
Male	5.79±3.08	.268	.790	44.08±12.14	-.387	.700
Female	5.59±2.62			45.41±13.57		
Residency status						
Legal	5.33±2.88	-.296	.768	44.69±10.98	.046	.964
Illegal	5.60±3.10			44.50±14.45		
Residency duration/month		.165	.205		.065	.621
Employment type						
Full-time	5.54±2.48	-.002	.999	43.00±14.15	-.739	.463
Part-time	5.54±2.97			45.43±11.06		
Working hours						
Day/1 week		.150	.319		.018	.906
Hours/1 day		.190	.242		-.258	.108
Religion						
Protestant	5.22±2.66	1.891	.160	43.28±10.74	2.045	.139
Buddhism	7.50±3.54			59.50±13.44		
Others	6.62±2.73			47.85±18.19		
Living arrangement						
Alone	6.16±2.64	1.172	.246	49.52±13.89	2.419	.019*
Not alone	5.32±2.83			41.78±11.22		
Income (Thousand won/month)						
≤50	4.83±3.31	1.594	.212	42.00± 8.29	.988	.379
51-99	6.47±3.03			47.63±14.39		
≥100	5.20±2.44			42.97±11.34		
Education						
Middle school	6.11±2.72	1.612	.112	45.42±12.43	.397	.693
High school	4.96±2.74			44.08±13.69		

*p< .05, **p< .01

났다<Table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는 연령군(F=3.522, p=.036)과 동거상태(t=2.419, p=.019)에 따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40대는 외로움 정도가 41.09로 50대의 51.11에 비해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자 사는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49.52로 동료나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인 41.78보다 높았다<Table 4>.

4.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지에 대한 만족감과 외로움(r=-.565, p=.000)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64%는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

<Table 5> Cor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stress, and loneliness

(N=64)

Variables	Support network	Support satisfaction	Support composition	Stress	Loneliness
Support network	1.000	.025 (.869)	-.100 (.511)	.237 (.118)	.149 (.333)
Support satisfaction		1.000	.143 (.308)	.019 (.895)	-.565 (.000**)
Support composition			1.000	-.151 (.251)	-.192 (.142)
Stress				1.000	.213 (.103)
Loneliness					1.000

**p< .01

류하고 있었고 약 61%는 시간제로 고용되어 있었다. 또한 약 40%는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어 건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들은 평균 1-2명 정도의 사회적 지지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Kim(1998)이 보고한 미국에 이민한 한국노인의 사회적 지지자 2-3명에 비해 적은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은 4.83으로 '약간 만족한다(4점)'와 '꽤 만족한다(5점)'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eele-Card, Foxall 와 Barron(1993)이 COPD환자와 그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를 환자에서는 2.38, 배우자에서는 2.07로 보고하였으며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5.74, 5.15로 보고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지망의 크기, 만족도 모두에서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와 만족감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지지자 중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67.37로 나타났는데 미국에 이민한 한국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망의 79.29%가 가족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Hong, 1996) 한국에서 근무하는 조선족 근로자들의 가족지지자의 비율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외국에 거주하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외의 지지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지자 중 가족의 구성비율은 스트레스나 외로움과 관련이 없게 나타났다. 자료수집이 종교단체를 통해 시도되어 특정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 편중되었던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광범위한 대상자 선정과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점수는 10점 만점 중 평균 5.66으로 중간 이상의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Kim(2001)의 연구에서 암환자 가족원의 스트레스 평균이 6.9인 것에 비해 낮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 대부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므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사정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23점에서 79점까지의 분포 중에서 평균 44.90으로 Perry(1990)의 분류에 의하면 보통 정도의 외로움 상태를 나타내었다. 또한 보통 정도 이상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대상자는 약 21%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반 가정 노인의 외로움 점수가 평균 41.47인 것(Shin & Ko, 1996)과 대학생의 외로움 점수가 40.82(Kim, 1999)인 것을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가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중에서 지지망의 크기는 학력이 높은 대상자가 사회적 지지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졸인 대상자보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들의 지지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itwin(2003)의 연구에서 고학력의 노인들이 친구 지지망의 크기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지지자에 대한 만족에서는 동거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거인이 있는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만족이 혼자 사는 대상자의 지지 만족도보다 더 높았다. 이는 외로움과도 그대로 연결이 됨을 알 수 있는데 혼자 사는 대상자가 동료나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대상자보다 외로움의 정도가 더 높았던 결과를 볼 때 그러하다. Kim(1999)은 혼자 사는 대학생들이 부모 형제와 함께 사는 대상자들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낮은 땅에서 가족 내에서는 외에서 지지체계 없이 생활하는 대상자들에게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스트레스는 연령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외로움도 대상자의 연령군과 동거상태에 따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군과 관련하여서는 40대가 30대와 50대보다 스트레스의 정도도 더 낮고 덜 외로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체류상태와 체류기간, 고용상태 등 대상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변수들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선족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외로움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외로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고 특히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연구결과들(Chang & Yang, 1999; Kim, 1999)과 같이 외로움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장애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Duvdevany와 Abboud(2003)의 연구에서는 비공식적인 지지자원의 수가 많을수록 대상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스트레스 도구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각적 상사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지 사료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겠다. 또한 대상자들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지지자들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선족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외로움,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1월에서 4월까지였고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arason 등(1987)이 개발한 SSQ6를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스는 Cline 등(1992)이 개발한 시각적 상사척도를 사용하였다.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정판

RULS(Russell et al., 1980)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0.0 program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는 평균 1.52로 1-2명의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은 4.83으로 “약간 만족한다”와 “꽤 만족한다”의 중간정도 수준이었다. 지지자의 구성 중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67.37%이었다. 대상자들은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외로움도 보통 정도로 경험하고 있었다.
2. 사회적 지지자의 수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혼자 사는 대상자에서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지지자의 비율이 낮았다. 스트레스는 연령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은 연령군과 동거상태에 따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외로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외로움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외로움과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 조선족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의 정도는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타연구 결과에 비해 약간 높은 정도의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외로움은 지지망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선족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선족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완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러 속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선족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ang, S. H., & Yang, M. S.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lderly loneliness and its factors of personal attribute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ocial support. *Kao Hsiung I Hsueh Ko Hsueh Tsa Chih*, 15(6), 337-347.
- Cline, M. E., Herman, J., Shaw, E. R., & Morton, R. D. (1992). Standardization of the Visual Analogue Scale. *Nurs Res*, 41(6), 378-380.
- Duvdevany, I., & Abboud, S. (2003). Stress,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of Arab mother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ho are served by welfare services in northern Israel. *J Intellect Disabil Res*, 47(Pt 4-5), 264-272.
- Dykstra, P. A. (1990). *Next of (non)kin: The importance of primary relationships for older adults's well-being*. Amsterdam: Sewts & Zeitlinger.
- Hong, O. K. (1996). *Antecedents and health-related consequences of loneliness in older Korean immigr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 Israel, B. A., Farquhar, S. A., Schulz, A. J., James, S. A., & Parker, E. A.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tress, and health among women on Detroit's east side. *Health Educ Behav*, 29(3), 342-360.
- Keele-Card, G., Foxall, M., & Barron, C. R. (1993). Lonelin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f patients with COPD and their spouses. *Pub Health Nur*, 10(4), 245-251.
- Kim, H. S. (2001). Correlation between stress, coping patterns and physical symptom of cancer patient's caregiver. *J Korean Acad Adult Nurs*, 13(2), 317-326.
- Kim, J. S., Sodonompil, T. S., & Kangmail, L. (2001). *A study on status of public health and social problem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Debate forum for improvement of health and welfare in migrant workers.
- Kim, O. S. (1998).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Korean immigrants. *J Korean Acad Adult Nurs*, 19(2), 311-321.
- Kim, O. S. (1999). The effects of loneliness on alcohol drinking, smoking, and health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9(1), 107-116.
- Korea labor Institute (2002). *A study on migrant workers*. <http://ns.kli.re.kr>.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twin, H. (2003). The association of disability, sociodemographic background, and social network type in later life. *J Aging Health*, 15(2), 391-408.
- Ministry of Justice (2002). *Statistics of migrant workers*. <http://migrant114.org>.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A. Peplau, L. A., & Perlman, D.(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1-18), New York: Wiley & Sons.
- Perry, G. (1990). Loneliness and coping among tertiary level adult cancer patients in the home. *Cancer Nurs*, 13, 293-302.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 Pers Soc Psychol*, 39(3), 472-480.
- Sarason, I. G., & Sarason, B. R. (1985).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pplication*. Dorrecht,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 Sarason, I. G., Sarason, B. R., Shearin, E. N., & Pierce, G. R. (1987). A brief measure of social support: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 *J Soc Pers Relat*, 4, 497-510.

- Shearer, R. & Davidhizar, R.(1994). It can be never be the way it was: Helping elderly women adjust to change and loss. *Home Health Care Nurse*, 12(4), 60-65.
- Shin, M. H., & Ko, S. H. (1996).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J Psychol Nurs*, 5(1), 78-87
- Tijhuis, M. A., de Jong-Gierveld, J., Feskens, E. J., & Kromhout, D. (1999). Changes in and factors related to loneliness in older men. *Age Ageing*, 28(5), 491-495.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tress, and Loneliness in Migrant Yanbian Korean Workers

Kim, Ok-Soo* · Baik, Sung-Hee** · Kim, Kye-H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network, composition, and satisfaction), stress, and loneliness in migrant Yanbian Korean workers.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6, Visual Analogue Scale, and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sult: Results indicate that means for social support were 1.52 for network size and 4.83 for satisfaction. The proportion percentage of network for kin members was 67.37. Subjects felt the moderate level of stress and loneliness. The level of lonelin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social support.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is necessity to reduce stress and loneliness among migrant Yanbian Korean workers. Adequate social support satisfaction is crucial to reduce the level of loneliness in migrant Yanbian Korean workers.

Key words : Migrant Yanbian Korean Workers, Social support, Stress, Loneliness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